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에 관한 융합연구

김유정*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onvergent Research on Balancing Experience of Work and Child car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Yoojung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북한이탈여성 5명을 선택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 5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북한에서의 성장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해체 및 재구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에 입국했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진로 선택과 취업 지속의 어려움>사이에서 고군분투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일-자녀돌봄의 양립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실천적 서비스를 위한 제안으로서 부모교육, 경력경로 형성 프로그램,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 주제어 : 북한이탈여성, 일과 자녀돌봄, 양립경험, 융합적 연구, 현상학적 방법

Abstract This qualitative research is conducted to explore the balancing experience of work and child car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iv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rom double income family in their 40'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method. The five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and included as follows: <Developmental background from North Korea>, <Family split and reconstruction during the proces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Difficulties of child care during resettlement in South Korea>, <Hardship of career choice and job maintenance>, <Suggestions for balancing work and child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uggestions for practical services, such as parenting education, career path development programs and policies with gender perspective were mad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further research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as well.

• Key Words :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ork and child care, Balancing experience, Convergent research, Phenomenological method

*Corresponding Author : 김유정(yjkimds@gachon.ac.kr)

Received August 31,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October 2,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1. 서론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까지 총 957명일뿐이었으나, 2001년에는 한 해에만 1043명이 입국하면서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2년 여성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선 이후 북한이탈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 이들의 증가 원인은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위기인 ‘고난의 행군’ 동안 남성들이 직장에서 배급을 받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비교적 이동이 수월한 여성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다 탈북하게 되면서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2]. 남한 입국 북한이탈여성 전체의 78%는 20-40대 [1]로서 이들의 다수가 결혼을 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와 동반 입국 하거나 북한이탈여성들이 먼저 정착한 후에 순차적으로 자녀들을 입국시키는 경우가 늘어나 북한이탈아동과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3]. 이렇듯 점차 증가하는 북한이탈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 자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라 논의되었다[4,5,6]. 여성의 양육 경험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나타냈고,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7]. 또한 최근 중국 등 제 3국 출생의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8,9].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에 이들의 취업훈련과 직장유지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북한이탈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9%, 고용률은 67.8%인 반면,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 고용률은 50.5%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양육과 가사분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 북한이탈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직업훈련교육이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남한사회

의 안정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특히 45세 미만의 집단의 경우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미취학 자녀와 양육부담을 보고하였고, 45세 이상은 건강상태와 억양의 차이로 나타났다[12]. 이에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1,12,13].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받는 차별의 문제점도 논의되었다[1,10,11,12,13,16].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연령과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장애가 되어 구직활동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여성들의 양육 및 교육과 취업 경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은 이들 연구의 하위주제로서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 선행연구[14,15]에서 북한이탈남성과 달리 다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 및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 입국 후 다시 자녀를 출산하기도 하여 자녀부양의 책임이 배가 되는 특수한 상황을 놓이게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남한에서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인 취업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빈곤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1,15,16]. 또한 북한이탈여성 자신이 가부장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16] 배우자가 집안일 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점차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할 때 일과 자녀돌봄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가정생활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이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어[4,5,6,7,14],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아닌 ‘일-자녀돌봄 양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양립에 대한 고충이 많지만 ‘우리 안의 이방인’인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회학, 사회복지학, 북한학, 여성학 등 북한이탈주민여성들과 관련된 융합적인 학문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직장과 자녀돌봄의 양립에서 오는 어려움을 분석해서, 이들이 안정된 가정생활과 고용을 유지하며 한국사회에

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들의 취업과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사회통합[17]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모집단에서 구성원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 많이 사용되는 표집방법 중 하나인 ‘편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일했던 현장 실무자들을 통하여 소개받은 북한이탈주민여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과 합당한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과 수도권 내에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는 40

대 기혼의 북한이탈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명, 대학 졸업 3명으로 이중 4명은 남한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연구참여자의 직업은 시간제 근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일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남한 입국시기는 2005년에서 2011년 사이로 ‘탈북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재혼 혹은 삼혼을 한 기혼여성들로 자녀를 1명에서부터 많게는 4명까지 부양하고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의 남편들은 남한 출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족이며, 대부분 건설현장의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이다. 자녀 10명 중 1명은 북한 출생, 2명은 남한 출생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중국에서 태어났다. 전반적인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중간이하’라고 답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연구참여자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표 2>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	year of defect from N.K	year of arrival in S.K	marital status	occupation in NK	education (NK/SK)	occupation change after arrival in SK
A	mid-40's	2003	2008	remarried	factory worker	high school/n.a	part-time worker→part-time workshop worker
B	mid-40's	2005/2008	2009	remarried	factory worker	high school /cyber university	part-time worker→house wife →full-time office worker
C	early 40's	1998	2011	remarried	factory worker	high school/n.a	full-time factory worker →full-time office worker
D	early 40's	2000	2008	remarried	trader	community college /cyber university	house wife→part-time worker→full-time office worker
E	mid 40's	1997	2005	remarried	factory worker	high school /cyber university	house wife →full-time office worker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family

* NK: North Korea/ SK: South Korea

	age of husband	ethnicity of husband	year of husband's arrival	occupation of husband	number & gender of children	age of children	birthplace of children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A	early 50's	Korean-Chinese	2013	construction worker	1 boy	11	China	lower middle
B	early 50's	North Korean /Korean-Chinese	2010	construction worker	2 boys / 2 girls	18/12/12/8	NK/China/SK	lower middle
C	late 40's	Korean-Chinese /Korean-Chinese	2013	factory worker	1 girl/1 boy	15/11	China	lower middle
D	late 40's	Korean-Chinese /Korean-Chinese	2008	office worker	1 boy	11	China	middle
E	late 40's	Korean-Chinese /South Korean	n/a	office worker	1 girl/1 boy	11/7	South Korea	middle

2.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의 진행절차, 연구자에 대한 신분과 연락처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했다. 면접은 직장을 포함한 연구참여자가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에서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하면서 생활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의 기간은 2017년 7월10일부터 2017년 8월2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따라 추가적 정보가 필요한 경우, 면접은 2회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전화로 자료를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의 한 유형인 Giorgi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의 구체적인 4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18,19]. ‘일과 자녀돌봄’이라는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내용을 읽으며 인식한 후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와 공통된 속성들을 재배치하고 순환적인 분석 단계를 거쳐, 5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해냈다.

2.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Cuba가 제시한 질적 연구 평가기준을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0]. 먼저 연구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포화되도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확증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2인과 지속적인 의견의 교류를 통해 연구자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선(先)이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장실무자와 연구자들과의 면담 등 다양한 경로로 연구의 ‘진실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참여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고 보안유지에 노력했다.

3.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심층 면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은 5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Table 3> Balancing Experience of Work and Child car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ategories	Sub-categories	Units of Meaning
Developmental background from North Korea	Society with no freedom of choice	Life can be changed depending on parents' status.
		Occupations were set by the government without choice.
	Less meddling home environment	Fathers did not show any interests in household chores, but only focused on their jobs.
		Learning manners was the important part of discipline at home.
	Public school focused education	The school and teachers managed students thoroughly.
		School was responsible for helping poor students.
Family split and reconstruction during proces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Situation that kept children away unwillingly	The child were left in North Korea because mom left for China.
		The children were left in China because mom left for S. Korea
	Family split and reconstruction by family reunification and remarriage	Family split and poverty forced them to leave North Korea.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marriage happened to survive in China without their free will.
		Family members from China were reunited in South Korea.
		Remarriage happened in China or South Korea.

Difficulties of child care during resettlement in South Korea	Difficult adjustment with a language barrier	The children from China had a language barrier in S. Korea.
		The same terms were expressed differently in S. Korea.
	Unfamiliarity with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	Private education is more focused than public on in S. Korea.
		Moms need to involved closely with education of children in South Korea.
		Method of punishment is only carried by conversation in S. Korea.
	Lack of social network	Information of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 was needed.
		There are no extended family members for child care in South Korea.
		Identity were hid intentionally because of prejudice.
	Household chores sharing with husband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Cultural difference between the couple made conflict about sharing household chores.
		Husbands started helping household chores after becoming double income family.
Hardship of career choice and job maintenance	Conflict of choice between work and child care	Employment was delayed due to child rearing.
		it was hard to miss a great employment opportunity.
	Limited information on 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Effective career counseling was not provided
		Employment was considered unstable because it is a term position.
		Low income and limited employment assistance were provided.
	Discrimination by age and birth place	Middle age was a barrier for employment.
Being a North Korean can be a cause of ignorance by South Koreans.		
Suggestions for balancing work and child care	Programs suggestions for stable employment	it is needed to have an adequate career history.
		Mentoring for employment is suggested for newly arriv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new N. Korean defector employees.
		it is suggested for the employers to hir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a long-term contract.
	Recommendation of supportive programs for child care	Visiting teachers could be sent for N. Korean young children's education at home.
		Practical parenting education is needed to understand South Korean educational systems and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

3.1 북한에서의 성장 배경

3.1.1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회

북한은 부모의 당성과 신분에 따라 자녀의 일생이 결정되어지는 사회라서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본인의 적성과 선택의 고려 없이 국가에서 보내지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다.

“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라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애들은 포기하니까 뭔가 될 것 같단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죠.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2년제 갔었던 것은 아빠 엄마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북에서는 학교 졸업할 때면 학교에서 직업을 줘요. 학교에서 직업을 받을 때 원래는 회력제지 공장에 받았는데 크립 플라스틱 뚜껑. 칫솔껍데기 뚜껑 만드는데 다녔어요. 그런 걸 지방산업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죠.” (참여자 A)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봉제 회사원으로 일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10년 일했어요. 결혼하면 자유로운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묶여 살아야 되니까 장사도 못하고 그냥 일해야 되니까.” (참여자 B)

3.1.2 간섭이 많지 않은 가정환경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로 결혼 후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어머니는 가사와 양육을 책임 지고 아버지는 일을 하여 당으로부터 배급받아 가족을 부양했다. 남한과 달리, 어차피 고등학교이후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진로와 대학진학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공부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예절과 같은 가정교육은 철저히 했다.

“결혼하면 남자가 세대주(남편)가 되고 북한은 배급제이니 그 밑으로 부모, 자식, 부인이 다 배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급을 받으니까 부인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참여자 B)

“북에서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했어

요. 아빠가 바쁜 사람이고 북한에서 남자들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 가정적이고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참여자 E)

“북한도 엄마가 거의 다 교육하죠. 공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많이 안하시는데 도덕, 집안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같이 하죠. 주로 어머니가 하시지만……. 아버지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손님들 왔을 때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참여자 A)

3.1.3 공교육 중심의 교육

현재는 북한에서도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공부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방과 후의 활동은 학원이 아니라, 모두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무료로 제공되었다.

“선생님이 5-6명씩 그룹을 짜 줘요. 1조 2조 이렇게 조마다 책임자가 있어요. 반장. 모여 앉아서 숙제를 하고 숙제가 끝나면 흩어져요. 그 다음 부터는 자유시간이고.”(참여자 B)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시험치고 학교에서 시험 봐서 틀리면 나머지 남아서 공부하고, 북한에서는 선생님한테 시험기간에 검열을 받아야 되거든요. 합격할 때까지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참여자 A)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주세요. 학교에서 탁구를 배우고 싶으면 탁구반에 들어가면 되고 모든 것을 방과 후에는 다 해결해주니까 사교육은 없고 소조(작은 조) 활동을 했어요. 작은 그룹으로 하는 거죠. 다 무료이죠.” (참여자 D)

“저희 때까지는 예체능 같은 거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선생님이 배워주고 크게 별로 사교육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3, 4시까지 다 같이 배우는 거라서.” (참여자 E)

3.2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해체 및 재구성

3.2.1 자녀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자녀 및 가족과 헤어졌다. 한편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며 중국에서 낳은 아이와 이별을 해야 하는 경험도 하였다.

“탈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탈북을 한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결혼을 했고 탈북할 당시에 친정에 애를 데리고 와 있다가 돌아가지 못해서... 제가 재입북해서 찾아가기 전까지 친정엄마가 애를 3년

간 키워주셨어요.” (참여자 B)

“애가 둘 있는데 작은 애(아들)는 제가 데리고 2011년에 입국하고 딸은 중국에 아빠와 같이 있다가 2년 후인 2013년에 왔어요.” (참여자 C)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체류하면서 낳은 애들 쌍둥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지금 중국에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고 있고. 애기아빠는 지금 장애인인 돼서 일체 사회생활도 못하고 제가 옷부터 생필품까지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참여자 B)

3.2.2 가족 해체와 재혼으로 인한 가족 재구성

연구참여자들은 빈곤으로 인해 탈북했는데 중국에 갔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머물게 되었다. 남한에 정착한 후, 조선족 남편과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남한으로 데리고 와서 재결합을 하거나 남한에서 재혼하여 가족을 재구성하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특히 연구참여자 B의 경우, 남편이 3명으로 북한에서 결혼했다가 탈북과정에서 중국인과 다시 결혼했으며 남한에 입국해서 조선족과 재혼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이 4명으로 이 중 2명은 현재 남한에서 같이 살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모님이 1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나라가 어려워져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오히려 우리들한테 돈을 내게 했어요. 힘들니까 나왔어요.” (참여자 C)

“중국가면 돈 벌 수 있다 해서 갔는데 홀어머니가 아들이랑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중국 돈 5500원(한국 돈 100만 원 정도)에 팔려가서 눌러앉게 된 거죠.” (참여자 D)

“남편은 중국에서 만나 결혼했고 초청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둘 때 제가 같이 데리고 왔고.” (참여자 A)

“돈 좀 벌어보려고 탈북했을 때에는 이혼을 안 한 상태로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했었죠. 재입북 해보니 남편은 재혼한 상태이었고 탈북했던 게 알려져서 북한에 살 수 없어 아들을 데리고 다시 탈북했죠. 남한 와서 재혼했어요. 국제결혼. 중국 조선족이랑.” (참여자 B)

3.3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녀돌봄의 어려움

3.3.1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대부분은 중국 출생으로 거기서 영·유아시절을 보내서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이 남한에 입국하였다. 그로 인해 입국 초기에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과 자녀들은 같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다르

게 쓰이는 전문용어나 외래어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에 오자마자 4살짜리 아들을 애들하고 어울려야지가 빨리 적응하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애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가지고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몇 번이나 바꾸고 바꾸고.” (참여자 C)

“저도 북한에서 나름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애를 배워주려고 했는데 언어 자체가 틀리니까. 저희는 더하기 빼기 이런 단어 안 쓰거든요. 빼기가 아니라 덜기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도 발음이 다르고 좀 달라요. 제가 애를 제대로 배워주지 못하겠구나. 애는 뭘 뭘 준비해 줘 그러는데 제가 용어를 몰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참여자 B)

“엄마들이 애들 픽업(pick-up)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영어를 그냥 쓰니까 외래어 사용이 어렵죠.” (참여자 D)

3.3.2 이해하기 힘든 남한의 교육방식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 위주인 남한 교육체계와 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많았다. 준비물부터 숙제 지도까지 모르는 것이 많아 고생하기도 하고 엄마가 많은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또한 애들을 야단치는 방식도 대화로만 해야 돼서, 체벌에 익숙하던 자신의 방법을 고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이 아주 달라요. 저희는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다 배워주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다 배워주는 게 아니고 학원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학교는 무슨 필요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애가 시험 치는데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학원가서 배워오라고 그랬대요.” (참여자 A)

“여기는 학교 가니까 종이를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하나 하나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똑같은 조선 글씨를 썼는데 나는 못 알아볼 글씨를 써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준비물이 뭔지 몰라서 안 보낼 때도 있고 애는 그럼 자기 혼자 못 가져갔다고 쩡쨍대고.” (참여자 C)

“큰 애는 말로 잘 안 들으니까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 매도 들고 그랬죠. 큰 애는 북한에서 자랄 때부터 훈육이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하나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제가 화병이 나고 이상하게 저는 때려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다 말로 하는데 작은 아이는 때리지는 않는데.....” (참여자 B)

3.3.3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에 의지할 수 있는 확대가족이 없어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친한 지인도 없어 물어볼 곳이 없다 보니 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육 정보에도 어둡다고 했다. 한편, 연구참여자 자신이 북한 출신임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탈북민이 근처에 많이 살긴 하는데 저는 탈북민들하고 많이 안 어울려요. 하나원 동기들은 저희 아파트에 없으니까 카톡만 하지 만나기가 어렵고. 제가 남한 분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교회 언니한테 가끔 필요할 때만 물어 봐요. 사소한 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애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인터넷 검색도 잘 안 해요.” (연구참여자 C)

“친정이 없고 시부모 없으니까 혼자서 24시간 다 돌본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교대로 봐주시고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애가 아파서 계속 주사기 꼽고 있으니까 샤워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연구참여자 B)

“학부모 회의를 가진 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서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게끔 만들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면 티가 날까 봐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 엄마 말투가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동네 또래 엄마들하고 처음에는 조금 어울리다가 더 친해지면 티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E)

3.3.4 다른 문화권 출신 남편과의 가사분담과 자녀 돌봄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란 남편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주부일 때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가사분담이 시작되자 갈등이 생겨 싸움까지도 하게 되었다. 집을 떠나 장기간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자녀돌봄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맞벌이 가정으로 적응이 되자 남편들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고, 남한 출신 남편의 경우 조금 더 협조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족은 남성 중심적이예요. 한족이랑 달라요. 부엌일은 조금씩 하는데 ‘남자라는 자존심’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지내보면 옛날에는 ‘남자 우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보여요. 집안일 시켜야 하지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런데 먼저 도와주지는 않아요.” (참여자 A)

“조선족이라서 한국남자들처럼 심한데 남편이 제가 살림만 할 때에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참여자 C)

“제가 맞벌이하면서 힘들다는 거 아니냐 남편이 하려고 하더라구요. 특별히 나누어서 하진 않아도 알아서하고.”(참여자 D)

“결혼해서 일을 안 할 때 집에 있다 보니까 다 했었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었죠. 근데 제가 일을 하니까 가사 일이 안 되니까 남편이 저만 오면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은 엄청 싸웠어요. 1년이 적응되니까 남편이 그 때부터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적응이 되니까 안 싸우고 시간 나는 사람이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참여자 E)

3.4 진로 선택과 취업 지속의 어려움

3.4.1 자녀돌봄과 일 사이에서의 선택 갈등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돌봄과 일 중에서 보육을 위해 취업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고 둘 다 병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때는 망설였지만, 이후에는 찾아온 취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솔직히 2개는 다 못 가져가잖아요. 돈을 포기하던지 애기를 포기하던지. 애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알바처럼 잠깐 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맞벌이 부부들 보면 애들을 돌봐 못주니까 일하러 갔다 늦게 돌아오면 애들이 고저 밖에서 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잡아줘야지 자기주장이 나올 때 못 잡는 거예요.”(참여자 A)

“남편이 아이는 만 3살까지는 엄마가 집에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고 직업훈련 가서 IT자격증 따고 여기저기 원서냈다가 채용이 되었어요.”(참여자 D)

“솔직히 자격증만 있지 실무는 하나도 없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근데 출근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모유 먹던 애를 말린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시간 늘려가면서 애기를 적응 기간을 두는데 저는 곧 8시간 말기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프고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게 감사해 가지고.”(참여자 B)

3.4.2 제한된 취업 정보와 불안정한 고용

연구참여자 C는 새로 정착한 남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스스로 포기해서 취업훈련을 아예 안 받았다. 공방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A를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전일제 사무직에 취업이 되었지만 비정규직이어서 여전히 취업이 불안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낮은 임금에도 만족해야 되는 형편이다.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저희는 왔을 때에는 누가 좋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도 주변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심심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를 들었어요. ‘앞으로 뭐가 해야겠다.’ 해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좋은 직업 얻을 생각도 없었고 취직할 생각도 안 했어요.”(참여자 E)

“처음에는 직업훈련 안 받았어요. ‘내가 이제 배워 봤잖아 나를 써 주겠니?’ 학원 다니는 게 그냥 헛시간만 팔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 같고 저희는 컴퓨터란 것을 만져도 못 해보고 구경도 못 해봤는데, 처음 3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이 안 좋아서 놀았어요.”(참여자 C)

“처음에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말투만 다를 뿐이지 업무처리에서 크게 부족한 게 없었던거든요. 근데 벌써 제 위로 3명이 정직원으로 왔거든요. 여기서는 나를 정직원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기간제로 들어왔으니까.”(참여자 E)

“도서관에서 사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직 5년이라서 내년 2월 14일이 만기예요. 5년이 만기인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참여자 D)

“저는 사실 급여는 많지 않아요. 취업장려금은 우리한테 나오는 거고 고용지원금은 사업주한테 나오는 건데 대부분 돌려주세요. 그 대신 급여가 낮게 책정되지요.”(참여자 B)

3.4.3 연령과 출신에 따른 차별

남한에서도 중년여성은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취직이 되었다 해도 실수할 때마다 직장상사가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트집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해도 취업이 잘 안되잖아요. 나이가 30만 넘어도 취업이 어려운 거예요.”(참여자 A)

“취업을 하려고 하니가 다 30대 미만을 찾는 거예요. 아가 씨들이나 젊은 20대들.”(참여자 C)

“제가 잘못하고 그럴 때 꼭 북한에서 왔는데 이해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원리원칙대로 잘못된 거면 굳이 북한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꼭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잘못된 거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참여자 B)

“사무직으로 옮기고 나서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탈북자라 배워먹지 못해서 그런다. 아무 것도 모른다. 말이 안 통한다. 말 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 속상해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참여자 C)

3.5 조화로운 일-자녀돌봄의 양립을 위한 제안

3.5.1 안정된 고용을 위한 방안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에서 경력이 전혀 없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력개발이 필요하며, 취업멘토와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장기적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이력서에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력서가 너무 백지라서 쓸게 없어서 온라인으로는 이력서 제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여자 B)

“그 때에는 IT자격증 하나만 있고 경력이 없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취직이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D)

“일찍 사회를 알고 정보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4, 5년은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도 금방 온 사람들한테 해 줄 말 되게 많고 나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북한사람이 북한 사람들 멘토를 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E)

“저는 장애인쪽에서 일하다 보니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우리한테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이 탈주민은 4년 동안만 고용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런 제도적인 게 있으면 취업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4년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처럼 일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고 채용되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B)

“30대에는 이제 배워서라도 바라는데 취직할 수 있는데 30대 중반인데 알바식 일하거나 노는 애들 너무 많아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50% 넘게 노래방 도우미 된다 하는데 그거 왜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 그렇죠. 쉽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것 밖에 밭 디딜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네가 학교 어디만큼 나왔나. 서류 뭘 내라. 이런 게 없잖아요. 저도 늦게 시작했지만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시작이 어려워요.” (참여자 E)

3.5.2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

사교육 위주의 남한 교육체계에서 방과 후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중요하다.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이 없는 지역에서 사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교육을 하게 되면 사교

육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에 대한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다.

“탈북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탈북민 애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학원을 다니는 대신에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자원봉사자를 잘 관리해서 방문교육 같은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지금은 만족하지만 애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녀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사춘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일과 자녀돌봄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심층 면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여성은 일과 자녀돌봄을 어떻게 양립하며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경험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성장 배경>으로 어릴 때 남한과 다른 교육과 양육을 경험했으며,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해체 및 재구성>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자녀들과 남편을 한국어로 테리고 왔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녀돌봄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였고, 이해하기 힘든 남한의 교육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가사분담으로 인해 갈등도 있었다. 새로운 정착지인 남한에서 <진로 선택과 취업 지속의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취업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을 겪거나 그 둘을 병행하기도 하면서 미흡한 취업정보와 제대로 받지 못한 직업훈련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직장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북한 출신이라는 차별대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화로운 일-자녀돌봄의 양립을 위한 제안>에서는 안정된 고용을 위해 적절한 경력개발과

취업멘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자녀돌봄을 위해서는 사교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문교육과 실제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북한이탈여성의 조화로운 일과 자녀돌봄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양육과 교육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자립을 강조하는 북한의 양육 문화와 달리, 엄마의 역할이 요구되는 남한의 교육방식이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기초적 용어와 외래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 교육에서는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만 분리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워 남한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가족을 형성하거나 잔류 가족과 재결한 경우, 새로운 가족 생활주기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른 문제 및 갈등해결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자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경력 경로(career path)'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에서의 경력이 없기에 노동시장 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과정에서 관련 업무들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통해 경력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취업 전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멘토'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성인들을 위한 멘토제는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여성의 다양성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는 기초설계부터 1:1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되어야 한다[15].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 취업을 해도 남한의 직장 분위기나 용어에 대해 물어볼 곳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통합 측면에서 되도록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남한주민을 멘토로 매칭하여, 취업 이전만이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안

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직장유지 및 사회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북한이탈여성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일과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이 공표된 적이 없다. 이제는 북한이탈남성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출산, 육아, 학령기의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가족관계를 비롯한 직장에서 차별대우 등의 여러 고충을 가진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의 정책이 필요하다. 점차 증가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남한에서 이들의 자립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생활과 자녀돌봄을 병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자료를 융합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의 과반수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일과 양육이라는 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배우자가 조선족이 다수이었던 것과 남한에 시부모가 없는 경우이어서 연구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후속연구로는 남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시부모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혹은 가족돌봄 양립에 관한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2016 Stat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ettlement, Ministry of Unification.
- [2] S. Kim, "Change of North Korean Society and Family culture after 1990", Korean Family Social Welfare. pp. 12-28, 2015.
- [3] Y. Kim, Diaspora Experience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Ewha Womans University, Ph D. thesis, 2012.
- [4] J. Y.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ar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 Child care & Education, Vol. 13, No. 1, pp. 85-106.
- [5] H. Choi, H. Kang,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Perception of School Activities Participation," *Journal of Open Parent Education*, Vol. 8, No. 3, pp. 87-100, 20
- [6] J. E. Jung, J. K. Choi,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Adolesc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6, No. 4, pp. 375-419, 2015.
- [7] S. Hong,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nd Their Settlement Tasks: From the Family Perspective", *Institute for Peace Affairs*. Vol. 25, No. 2, pp. 173-205, 2012.
- [8] K. Y. Lee, M. K. Kim, J. W. Baik, "A Study on the Child-Raising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with Children Born in China"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Vol. 19, No. 3, pp. 213-240, 2014.
- [9] M. R. Han, "Transnational Mother Experience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Journal of Multiculture and Peace*, Vol. 9, No. 2, pp. 160-178, 2015.
- [10] E. Lee, "A qualitative study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job-seeking strategies.", *Korea Science & art forum*, Vol. 27, pp. 173-189, 2017.
- [11] J. H. Jung, S. H. Sohn, J. K. Lee, "Educational and Training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Does It Promote Their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pp. 267-296, 2013.
- [12] J. Choi, "Enhancing Local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 Preparing Korea Reunification."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pp. 181-211, 2014.
- [13] H. Kim, S. Kim, M. Kim, "Study on Enhancing Competency for Employability of North Korean Refugees", *Occupation and Employment Services Studies*, Vol. 9, No. 1, pp. 45-79, 2014.
- [14] J. P. Park, "Female Sataemin's Child care and Work: The Current State and Support Measures", Vol. 28, pp. 97-135, 2009.
- [15] Y. Chung, Y. Kim, "A Study on the Work-Family Balanc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Foundation*, 2013.
- [16] S. K. Choi,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daptation Resettlement in South Korea from Gender Perspectiv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2, No. 4, pp. 327-347, 2011.
- [17] J. Lee, "A narrative on Badminton Sports club Activity and Adaption of a North Korean refugee chil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pp. 333-343, 2017.
- [18]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 [19] A. Giorgi,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2004.
- [20] Y. S. Lincoln,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1985.

저자소개

김 유 정 (Yoojung Kim)

[정회원]



• 1991년 5월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SW: 사회사업 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DSW)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복지, 청소년복지, 임상사회복지